

# 살인죄 시효 만료된 줄 알고 자수...도피 29년만에 감옥행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 주범 29년만에 법정에 서게 된 까닭은?

### 영산과 행동대장 등 2명 2011년 ‘공소권 없음’ 확인 후 귀국 ‘2016년 중국 밀항’ 자진 신고...검찰, 밀항 시점 거짓 적발 수사기관 공조 미흡으로 공범 1명 검거 못해 공개수배 전환

서울 도심에서 대낮에 보복살인을 벌인 조직폭력배가 범행 29년만에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귀국했지만, 검찰의 재수사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자칭 공소시효 만료로 놓아줄 뻔한 중범죄자를 법정에 세웠다는 성과는 있지만, 공범이자 살인의 주범인 다른 조직원을 놓쳐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6일 오전 광주지검 5층 소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영산과 행동대원 서모(55)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서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다른 주범 정동섭(55)에 대해서는 26일자로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서씨는 나주지역 조직폭력단체인 ‘영산파’의 행동대원으로 자신의 조직 두목을 살해한 상대 조직원 2명을 보복 살해하고 다른 조직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9일 첫 재판(7월 20일자 광주일보 6면)을 받았다.

일명 ‘강남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에는 영산과 조직원 12명이 가담했다. 이 사건으로 신양파와 조직원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살인에 가담한 영산과 조직원 12명 중 10명이 붙잡혀 무기징역에서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주범인 서씨와 정씨는 잡히지 않았다.

사건직후 서울지검은 서씨와 정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이들에 대한 행방을 찾지 못해 2011년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서씨가 돌연 중국 심양 영산관에 밀항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귀국하면서 다시 주목 받았다. 귀국한 서씨는 경찰에서 2016년 9월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양경찰은 서씨에 대해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사건 공소시효 완성 전 밀항을 했다고 주장하는 서씨의 진술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밀항 시점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20여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서씨가 2003년 중국으로 밀항을 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검찰의 수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공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른 주범인 정씨를 검거하

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산과 행동대장으로 살인사건의 주범인 정씨도 서씨와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밀항했다.

정씨는 서씨와 함께 2011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 처분 사실을 확인하고 이듬해 귀국했다. 이후 2012년 7월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중국 도피 시절에도 영산과 조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생수사업을 하고 안마방을 운영하며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로 돌아온 뒤 10년

넘게 건설업체 임원으로 활동하고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등 여러 사업에 관여했다.

정씨의 활발한 활동에도 수사기관은 이미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된 탓에 정씨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는데도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안 정씨가 10년 넘게 국내에서 활동을 했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틈을 타 정씨는 서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을 눈치채고 지난날 잠적해 버렸다. 정씨의 마

지막 행적지는 서울시 서초구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검찰은 정씨에 대한 수사를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검·경 조직범죄 대응 수사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도주중인 정동섭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영산과 조직원들이 도피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는 여러가지 정황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검찰 ‘공소시효 미완성’ 증거 어떻게 확보했나

광주지검이 서씨를 법정에 세우게 된 결정적인 배경인 공소시효 미완성 증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4년 12월 4일 오후 3시 범행을 저지른 서씨의 살인죄 공소시효 만료시점은 2009년 12월 3일이었다.

하지만 공범들이 기소돼 1996년 7월까지 재판 받게 됨에 따라 500여일의 공소시효가 중지돼, 서씨의 공소시효 완성 시점은 2011년 6월 5일로 연장됐다.

결국 지난 2011년 서씨에 대한 살인죄 공소시효가 완성됐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범인이 외국으로 도피를 할 경우 공소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이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2015년 7월 전까지 서씨의 공

### 용의자 “2016년 중국 밀항” 검찰, 교민 증언·증거 등 ‘2003년 밀항’ 진술 확보

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서씨를 재판에 세울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은 서씨의 외국도피 증거를 찾아 나섰다. 서씨가 밀항했을 당시 동행했던 교민을 접촉해 중국에서의 서씨 행적을 파악했다. 서씨에 대한 행적을 알고 있는 교민은 한 두명이 아니었다. 교민들의 증언과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서씨의 중국 행적이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을 확인했다.

또한 같은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서씨 두목 A씨의 접견 기록도 확보했다. 서씨의 조직원들이 A씨에게 영치금 및 가족 생활비 명목으로 10년간 484회에 걸쳐 3억 2300여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 접견 기록에 서씨 등의 밀항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확보한 A씨 접견 녹음 파일만 총 674개에 달했다. 이 파일 일부에 조직원들이 A씨에게 서씨의 밀항사실을 알리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한 검찰은 서씨로부터 지난 2003년 군산에서 중국으로 밀항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살인죄로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학부모 악성 민원, 교감·교장이 맡는다

### 광주교육청, 대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의 교권 강화 대책에 악성 민원인을 담당 교사가 아닌 교감이나 교장이 대응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전교조)는 “최근 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 침해 및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악성 민원인을 교감이나 교장이 대응하는 방안은 해당 교사가 직접 상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교사들의 고충을 반영한 것이다.

정책협의회에서는 학부모나 민원인이 학칙을 위반할 경우 출석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교장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사에게 사생활 보호를 위한 업무용 전화를 지급하고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시교육청과 전교조는 교권보호 대책을 현행 ‘광주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담거나 별도 조례 제정에 나설지 검토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교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4일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교원 단체 및 초·중등 교장·교감단 대표 등과 협의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협의회에는 광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 초·중등 교장·교감단, 교권 담당 변호사,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현장지원단’ 구성 및 역할, 광주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육 현장 보호 방안,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책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도전! 청림 스마트 골든벨 광주시 동구청 직원들이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전! 청림 스마트 골든벨' 행사에서 구호를 외치며 청림을 다짐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청렴 관련 제도 및 정책 관련 퀴즈를 맞추는 서버이벌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